

신씨 영장실질심사도 포기했는데...

신정아씨 구속영장 기각 논쟁 확산

檢 “수사 차질” 法 “단순 의혹 제기”

서울서부지법이 사문조 위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신정아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이 19일 강력히 반박하는 등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법원 일각에서도 기각이 다소 의외라는 시각이 있는 반면, 기각될 여지가 컸다는 의견도 나오는 등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검찰이 이례적으로 영장기각을 비판하는 입장을 발표한 데다 이에 대응해 서울서부지법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반박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등 신경전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의외의 기각인가, 구속 요건 불충분인가=신씨에 대한 영장 기각이 '의외'라는 반응은 우선 신정아씨 본인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는 데서 출발한다.

본인이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검찰의 주장에 대해 다룰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펴는 게 일반적이다.

이런 경우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종종 영장을 기각해 오곤 했다. 그러나 신씨가 심사를 포기한데다 본인도 구속을 각오한 상황에서 영장을 굳이 기각한 것은 이례적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피

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을 경우,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경우는 대략 10건에 1건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흔하지 않다.

이마저도 영장실질심사 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심사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신씨가 심사를 포기한 상황에서 영장이 기각된 것은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영장 혐의 내용 구속 사안인가=신씨의 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었다는 의견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사항이 과연 영장 발부 사안인가 하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검찰의 영장 청구 이유는 신씨가 학력을 위조해 국고 보조를 받았고 동국대의 정상적 임용절차를 방해했다는 혐의 등이다.

이번 사건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신씨를 비호했다는 의혹이 짙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아직은 '의심'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신씨-변양균 실장 커넥션이라는 본질을 밝히기 위한 '별건'에 지나지 않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검찰과 법원의 대립=검찰은 '신

씨 영장 기각' 이후 이틀째 수뇌부 대책회의를 갖는가 하면 중수부장 브리핑, 영장항고제 도입 건의 등 강경 대응을 내놓으며 법원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19일 "법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총장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해 직접적 언급을 피하면서도 "수사에 엄청난 차질이 있다고 봐야 된다"라고 말해 편치 않은 심기를 내비쳤다.

대검은 18일 밤 서울서부지법의 영장 기각 직후 정동기 차장 주재로 긴급 심야 대책회의를 열어 속의한 뒤 법원을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19일 오전에도 총장 주재로 이틀째 대책회의를 열어 신씨에 대한 영장 재청구 방침을 결정하는 등 격양된 분위기를 반영했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은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청구된 범죄사실과 소명자료를 판단해 본 결과, 신씨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영장을 기각했다"며 "법원은 청구되지 않은 범죄 사실까지 감안해 영장을 발부할 수 없으며 단순히 의혹제기가 되고 있는 점만으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재판의 본질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서부지법은 신씨에 대한 검찰의 영장 재청구 방침과 관련 "검찰이 신씨 횡령 혐의를 보강 수사해 범죄상당성이 소명되고 구속요건이 소명될 경우 새로운 재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연합뉴스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법원과 검찰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19일 오전 정상명 검찰총장이 출근하고 있다. 정 총장과 뒤편의 대법원 건물이 양측의 갈등을 상징하는 듯 하다. /연합뉴스

“학력위조 인정하나 횡령은 안했다”

신정아씨 변호사

'가짜학력'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의 변호를 맡은 박종록 변호사는 19일 "신씨가 학력을 위조한 것은 인정하지만 기업후원금 횡령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날 오후 신씨가 입원한 서울 천호동 강동구북리병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조사에 대비하기 위해 신씨와 함께 그간 나온 혐의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신씨는 "기업 후원금의 경우 들어오는 대로 투명하게 영수증 처리되며 이 또한 회계담당자가 다루는 일"이라며 "미술품의 회계시스템을 조금만 뜯어봐도 기업 후원금이 나를 거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 "큐레이터는 전시와 기획, 해설을 담당할 뿐 회계분야와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며 자신의 횡령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그러나 자신의 예술대 학위 논문이 가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병원입원 신씨 음식 거의 못먹어

'가짜학력' 사건으로 체포됐다 영장기각으로 풀려나 병원에 입원한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는 강동구북리병원 입원 이틀째인 19일 피로한 모습으로 각종 검진을 받았다. 전날 밤 11시께 이 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신씨는 응급처치를 받은 뒤 1인 병실로 이동해 하룻밤을 보냈다.

신씨는 입원 이틀째인 이날 오전 혈액검사와 심전도검사, 간 기능검사와 X-레이 검사를 잇따라 받았다.

신씨를 면담한 박종록 변호사는 "신씨가 병원에서 제공되는 아침과

점심식사에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며 "때때로 물만 조금씩 마시고 있다"고 전했다. 신씨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병원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응급실에 들어가서 간단한 절차를 밟은 뒤 1인용 특실로 옮겨졌다.

신씨는 병실로 가자마자 "새우깡과 빵과 먹고 싶다"며 병원 직원에게 과자와 생수 등을 사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직원은 또 신씨가 사용할 삼푸와 린스, 치약과 칫솔 등을 사가 신씨가 장기 입원하면서 검찰의 수사를 받을 가능성을 대비했다. /채희종기자 chae@연합뉴스

청와대 '대국민 사과' 검토

정운재씨 사전 구속영장 청구 곤혹

청와대는 19일 부산 건설업자 김삼진(42)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정운재 전 의전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긴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사전 영장을 청구하면서 정 전 비서관이 청와대 재직시절인 지난해 말과 올해 초 2차례에 걸쳐 김씨의 세무조사 무마청탁을 주선한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와대는 검찰 수사가 정 전 비서관의 세무조사 무마청탁 주선에서 알선수뢰로 초점이 맞춰지면서 그동안 참여정부가 내세웠던 도덕성에 치명적인 오점이 남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1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검찰 수사결과 그에게 심각한 불법행위가 있다면 이것은 '측근 비리'라고 이름을 붙여도 제가 변명하지 않겠다"고 밝힌 대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겉으로는 예의 '신중함'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정 전 비서관의 혐의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고, 피의자의 주장이 완강하기 때문에 아직 어떤 사실이 확정됐다고 보기는 힘들지 않느냐"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정 전 비서관의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청와대의 입장이 당장 나올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만약 법원이 영장을 받아들여더라도 이는 범죄가 있을 가능성을 높다고 보는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지 모든 혐의가 '사실'이라고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청와대의 시각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정 전 비서관의 영장이 발부되고 혐의가 입증될 경우 노 대통령이 밝힌 대국민 사과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 청와대 내부에서는 사과 시기문제를 놓고 토론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내부에서는 다음달 2~4일 제2차 남북정상 회담을 앞두고 있는 만큼 사과 시기를 앞당겨 빨리 들고



19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운재 전 청와대 비서관.

가지는 '속결론'과 좀 더 상황을 주시해보자는 '신중론'이 엇갈려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사건의 윤곽에 대해 언론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시점에 스스로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입장을 밝히겠다는 것이 우리의 기조"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운재 전비서관은 盧대통령과 20년 인연 '측근중의 측근'

부산 건설업자 김삼진(42)씨 비호의혹과 함께 청와대 재직시절 김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19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운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노무현 대통령과 20여년에 걸친 오랜 인연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 전 비서관을 '리틀 노무현'이라고 부를 정도로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중의 측근'으로 분류하고 있다.

부산대 경제학과 83학번인 정 전 비서관은 총학생회장 이던 1986년 학내 시위로 구속됐을 때 자신의 변호를 맡은 노 대통령과 첫 인연을 맺었다. 그는 88년 총선에 처음으로 도전장을 낸 노 대통령의 연설비서를 맡은 이래 20여

년간 노 대통령의 곁을 지켜왔다.

노 대통령이 지역주의 극복을 내세우며 2000년 4월 총선에 한나라당의 텃밭인 부산 북·강서구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시는 바람에 '바보 노무현'이라는 호칭을 받았을 때도 함께 했다.

2001년에는 노 대통령의 대선캠프가 꾸려지자 부산지역 실무팀장을 맡았고, 2003년 1월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정부부와 전문위원으로 참여했다. 2004년 총선 때는 부산 사상구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해 한나라당 권철현 후보(현 국회의원)와 박빙의 승부를 펼쳤으나 낙선했다. /연합뉴스

유기농메이플소주 19.5°
일새주세요!

원연유기농메이플시럽으로
터 깨끗하고 부드러운 일새주 19.5°
좋은 사람들과 깔끔한 자리에선
"유기농메이플소주 일새주세요"

유기농메이플시럽으로 깨끗하게! 19.5°로 가볍게!